

<2021년 10월 4일 월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<간절히 하고자 해야> <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한 것>을 ‘하나라도 깨닫고 아는 것’ 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 알아라.
2. 하나님도 성령님도 <자기를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자들>을 ‘사사건건’ 돕고 함께해 주시는데도, 사람들은 그중에 ‘몇 개’ 만 도우시고 나머지는 ‘자기 수고’ 로 되는지 안다. 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밤낮으로 도와주시는데, 사람들은 ‘조금, 가끔씩’ 만 돕는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.
3. 지난날 ‘하나님과 주’ 를 믿게 해 주시고, ‘시대 말씀’ 을 듣고 ‘새 역사’ 에 오게 해 주시고, ‘수십 건, 수백 건을 돕고 함께해 주신 것들’ 을 다시 생각하며, 하나님과 성령님이 <섭리사>와 <자기>를 돕고 함께하심을 깨닫고 담대히 믿고 행하여라.
4. 다윗 왕은 산을 보고, 하늘을 보아도 <자기를 도울 자>는 ‘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’ 이라고 고백하며,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가 실족하지 않게 줄지도 않고 지켜 주신다고 고백했다.
5.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과 성령님은 <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>을 항상 돕고 행하신다.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도움을 받고도 ‘그중에 겨우 몇 가지’ 만 도우셨다고 생각한다. 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어떤 것들을 도와주셨는지 깨달아라. 깨달아야, 감사 감격하며 ‘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

하심' 을 깨닫고, 낙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담대히 행하게 된다.

6. 하나님과 성령님이 '자기를 얼마나 도와주시는지' 깨달아야, 힘이 생기고 담대하게 살게 된다. '조금' 돕는다고 생각하면,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힘이 빠져서 살게 된다.

7. <하나님과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>이 얼마나 중한지 알고, 깨달으려 해야 된다. 하나님과 성령님이 자기를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깨달을수록 더 돕고 함께해 주신다.